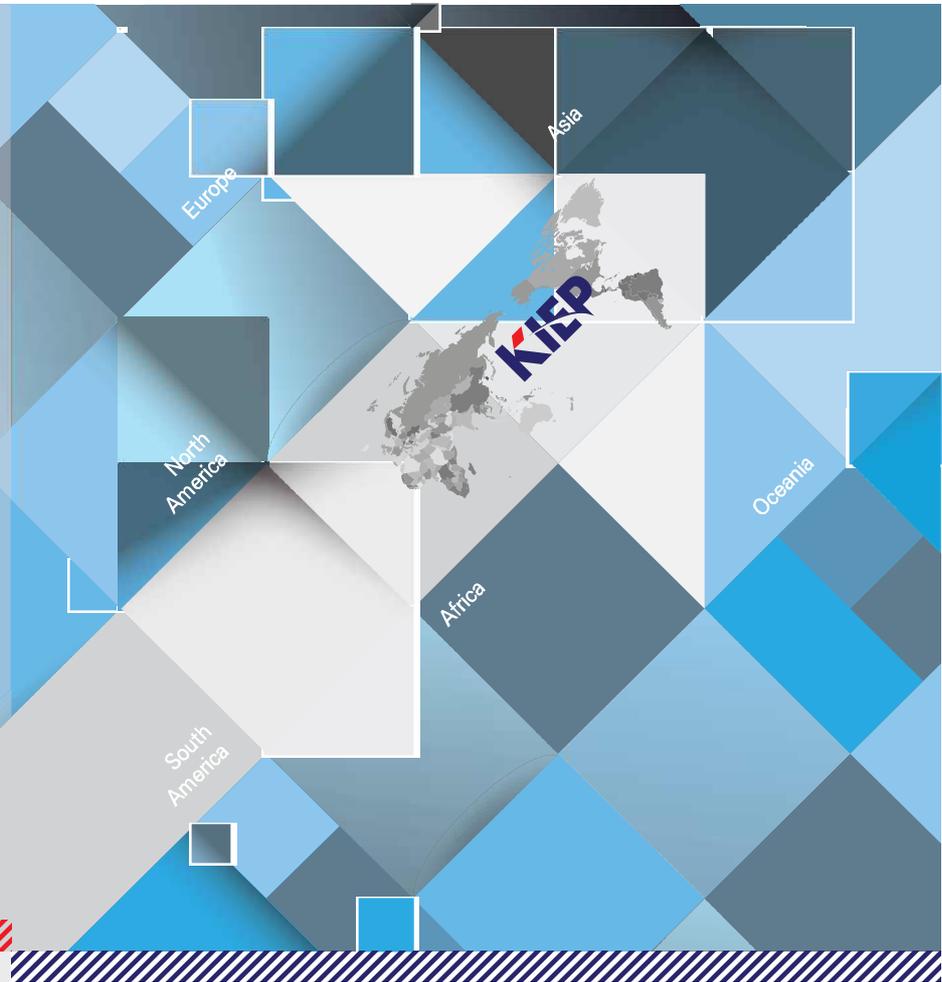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KIEP 기초자료
18-01

2018년 2월 12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현황과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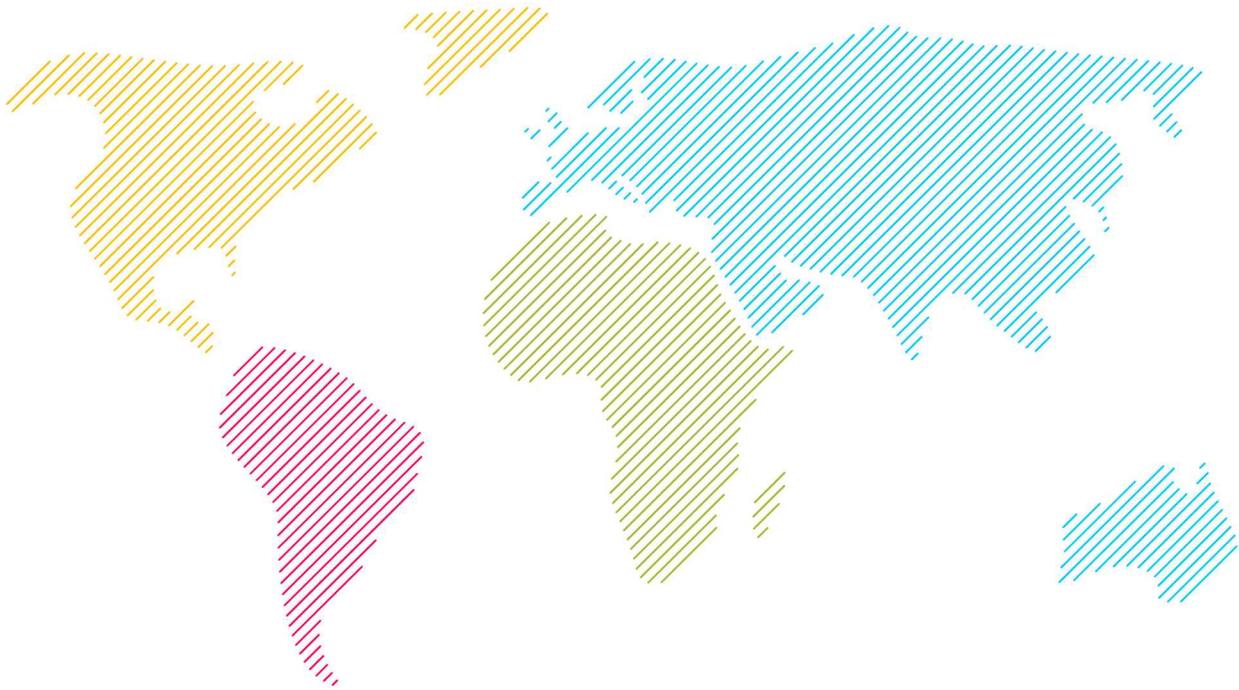
임소정 동북아경제본부 통일국제협력팀 연구원(sjim@kiep.go.kr, 044-414-1055)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현황과 전망

요약

- ▶ 북한의 지속적인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로 인해 유엔 안보리 및 미국 대북제재의 수위가 고조됨.
 - 총 10차례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안(UNSCR)은 2016년부터 초점이 WMD 이전통제에서 경제일반에 대한 제재로 바뀌고 있음.
 - 미국은 일련의 법령과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 유엔안보리 제재에서 더 나아가 러시아 및 중국기업을 겨냥한 2차제재의 발판 마련

- ▶ 2017년 11월까지 대중국 수출은 대폭 감소하고 수입은 오히려 늘어 상품수지 적자가 확대되는 등, 대북제재의 영향이 나타나고 있음.
 - 유엔제재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주요 품목은 무연탄 등 철·철광석, 납·납광석을 제외한 모든 광물, 수산물, 의류 등이며, 식품·농산물, 전자기기, 기계류 수출 제재(2397호)의 효과는 2018년부터 나타날 전망
 - 근로자 해외파견 금지(UNSCR 2371, 2375), 합작 금지(UNSCR 2371, 2375) 등에 따라 상품수지 적자 보전에 기여해왔던 서비스수지 등의 악화도 불가피
 - 미국은 중국기업들을 대상으로 대북 세컨더리보이콧을 진행 중이나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 등을 감안할 때 이 대상을 대기업까지 확대할지 여부는 미지수



차 례

1. 연구 배경
2. 주요 대북제재 현황
 - 가. UN 안보리 제재
 - 나. 양자제재
3. 대북제재 영향 평가
 - 가. UN 안보리 제재
 - 나. 미국 양자제재
4. 향후 전망

참고문헌

1. 연구 배경

■ 북한의 지속적인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로 인해 UN 안보리 및 미국 대북제재의 수위가 고조됨.

- 2016년 1월 4차 핵실험 이후 2017년 말까지 6차례의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
- 2016년 이후 미국 역시 대북제재법 채택, 행정명령 발동 등 제재 수위를 높여가고 있음.
- 특히 미국의 대북제재는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개인 등에 대해 세컨더리보이콧¹⁾ 형태로도 진행

■ 이에 따라 북한의 무역이 어떠한 영향을 받고 있으며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갈지에 대해 전망

- 북한 주요 수출품들에 대한 제재가 확대·강화되어 장기적으로는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
- 미국의 세컨더리보이콧 등의 영향으로, 북한에 우호적이었던 중국 및 러시아 등의 국가도 제재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 상황

2. 주요 대북제재 현황

가. UN 안보리 제재

■ 현재까지 대북 경제제재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안(UNSCR: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은 총 10차례 채택되었으며, 2016년부터 제재의 초점이 WMD 이전통제에서 경제일반에 대한 타격으로 바뀌고 있음.²⁾

- 안보리 제재 2270호 이전 유엔 제재들은 북한 민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핵 또는 WMD 관련 제재의 성격이 강했음.
- 안보리 제재 2270호부터는 경제일반에 영향을 끼치는 방향으로 제재의 성격이 변화

■ 2016년 이후 6차례의 안보리 대북제재에서는 북한의 주요 수출품에 대한 제재를 단계적으로 강화

- 2270호에서는 민생 목적 이외의 대북 무연탄 및 철광석 수입을 금지시켰으나 민생과 비민생의 구분이 모호하여

1) 세컨더리보이콧은 미국이 이란에 적용했던 경우와 같이 해당 국가와 거래하는 미국의 개인 및 기업뿐 아니라, 해당 국가와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 단체, 기관까지 제재의 대상에 포함하는 포괄적인 제재를 의미함.

2) 7차례의 전문가패널 기간 연장 목적의 형식적 결의안은 제외함. 제1차 UNSCR 1718(2006년 10월 14일); 제2차 UNSCR 1874(2009년 6월 13일); 제3차 UNSCR 2087(2013년 1월 22일); 제4차 UNSCR 2094 (2013년 3월 7일); 제5차 UNSCR 2270(2016년 3월 2일); 제6차 UNSCR 2321(2016년 11월 30일); 제7차 UNSCR 2356(2017년 6월 2일); 제8차 UNSCR 2371(2017년 8월 5일); 제9차 UNSCR 2375(2017년 9월 11일); 제10차 UNSCR 2397(2017년 12월 22일).

실질적 효과는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됨.

- 중국은 한반도 사드배치 결정 이후 ‘민생 목적’ 조항을 이용하여 대북 무연탄 수입을 크게 늘린 바 있음.3)
- 반면, 2321호에서는 ‘민생 목적’ 등 유보조항을 삭제하고 무연탄 수출 쿼터제재(4억 달러 또는 750만 톤 중 작은 쪽)를 도입함으로써 대북제재의 실효성을 뒷받침함.
- 이어 2371호에서는 북한으로부터 무연탄, 철, 철광석, 납, 납광석,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고 2375호에서는 직물 및 의류 완제품 수입도 금지함.
- 2397호에서는 더 나아가 식품, 농산품, 기계류, 전자기기, 토석류, 목재, 선박 수입을 전면 금지함.4)

■ 북한으로부터의 수입뿐 아니라 북한으로의 연료 수출 역시 단계적으로 제한함.

- 2270호에서는 인도주의적 용도 및 북한 민항기의 해외 급유를 제외한 항공유 수출을 금지함.
- 2375호에서는 북한으로의 정제유 수출량을 2017년 4/4분기에 50만 배럴, 2018년부터 매년 200만 배럴 (현 공급량의 55% 수준)로 제한했고 원유는 현재 수준인 400만 배럴로 동결했으며, LNG와 콘덴세이트 수출은 전면 금지함.
- 2397호에서는 원유를 민생용에 국한해 매년 400만 배럴 이하만 수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석유제품은 민생용에 국한해 매년 50만 배럴 이하만 수출할 수 있도록 30일마다 보고하는 조건으로 추가 제한함.

■ 북한의 노동자 파견 및 경험 금지 등 무역 외 외화획득 통로를 차단하는 조항들을 포함함.

- 2371호에서는 북한 노동자 고용을 동결했으며 대북 합작사업도 동결함.
- 2375호에서는 북한 노동자 신규 취업허가를 금지하고, 대북 합작투자도 금지했으며, 기존 합작사는 120일 이내 폐쇄할 것을 명령
- 2397호에서는 결의안 통과일로부터 12개월 이내 북한 노동자를 본국으로 송환할 것을 명령

표 1.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제재안	UNSCR 2270 (16.3.2)	UNSCR 2321 (16.11.30)	UNSCR 2371 (17.8.5)	UNSCR 2375 (17.9.11)	UNSCR 2397 (17.9.11)
관련 사건	4차 핵실험 (16.1.6)	5차 핵실험 (16.9.9)	ICBM미사일발사 (17.7.3 및 17.7.28)	6차 핵실험 (17.9.3)	ICBM미사일발사 (17.11.28)
경제 관련 주요 내용	대북 수입 금지 - WMD 개발과 연계된 무연탄 및 철·철광석 금지 ※ 민생 목적은 허용	대북 수입 금지 - 무연탄 수출 상한 설정: '16년 12월 5,340만 달러 또는 100만 톤	대북 수입 금지 - 무연탄, 철, 철광석, 납, 납광석, 수산물 금지	대북 수출 제한 - 정제유: '17년 4/4분기 50만 배럴, '18년부터 200만 배럴 ※ 현 공급량의 55% 수준	대북 수출 제한 - 원유 금지 ※ 민생 목적은 허용, 그러나 총량은 제재안 통과 이후

3) 2016년 4-7월 북한의 대중 무연탄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약 20% 감소하면서, 제재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었음. 그러나 동년 8-12월 무연탄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20% 이상 증가하면서 4-7월 감소분을 모두 만회함. 2016년 전체 북한의 무연탄 수출액은 11.9억 달러로, 전년대비 12.5% 증가하였음. 주요 수입국은 중국과 기타 아시아 국가에 국한됨(KITA, UNCOMTRADE 자료, 검색일: 2018. 1. 10).

4) 2017년 12월 22일 결의된 2397호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에서는 이례적으로 제재 대상품목에 대해 HS코드까지 명시함.

	<p>- 금, 바나듐광, 티타늄광, 희토류 전면 금지</p> <p>대북 수출 제한</p> <p>- 항공유 수출 금지 ※ 인도주의적인 용도 및 북한 민항기 해의 급유는 허용</p>	<p>중 작은 쪽 2017년부터 4억 달러 또는 750만 톤 중 작은 쪽</p> <p>- 은, 동, 아연, 니켈 전면 금지</p> <p>화물제재</p> <p>- 북한국적선박 소유, 운영, 대여, 보험 등 각종 서비스 제공 금지</p> <p>- 지정된 선박의 입항 금지, 압수가능</p> <p>금융제재</p> <p>북한 내 금융서비스 지사, 대표사무소, 계정 폐쇄, 자국 내 북한에게 금융서비스 제공 금지</p> <p>다량의 현금(bulk cash) 유입으로 제재 회피 여지에 대한 우려 표명</p>	<p>해파노동자 고용 금지</p> <p>- 현 수준 동결</p> <p>경협 금지</p> <p>- 북한과 합작사업 신설 및 확대 금지</p>	<p>- 원유: 현재 수준인 400만 배럴</p> <p>- LNG, 콘덴세이트 전면금지</p> <p>대북 수입 금지</p> <p>- 직물 및 의류 완제품</p> <p>해파노동자 고용 금지</p> <p>- 신규허가 금지</p> <p>- 기존 노동자 비자 갱신 금지</p> <p>경협 금지</p> <p>- 북한과 합작 사업 설립·유지·운영 금지 ※ 기존합작사는 120일 이내 폐쇄</p> <p>화물제재</p> <p>공해상에서 북한선박으로부터 화물이동 금지</p>	<p>연간 4백만 배럴 또는 525,000톤 이하만 가능</p> <p>- 정제유 금지</p> <p>※ 민생 목적이며 매 30일마다 안보리에 보고하는 조건으로 허용, 그러나 총량은 '18년 1월 1일 이후 연간 50만 배럴 이하만 가능</p> <p>- 북한 민간항공기 수리에 필요한 것들을 제외한 모든 기계류(HS코드 84~85), 운송기기(HS코드 86~89), 금속(HS코드 72~83)</p> <p>대북 수입 금지</p> <p>- 식품, 농산물(HS코드 12, 08, 07호), 기계류(HS코드 84호), 전자기기(HS코드 85호), 토석류(HS코드 25호), 목재(HS코드 44호), 선박(HS코드 89)</p> <p>해파노동자 고용 금지</p> <p>- 제재안 통과 12개월 내 모든 북한 해파노동자 본국으로 송환</p> <p>경협 금지</p> <p>어획권 구입 금지</p>
<p>관련 주요 조치</p>	<p>중국 상무부 고시 (16.4.5): 비민생용 북한산 무연탄 수입 금지</p>	<p>중국 상무부 고시 (17.2.17): 2017년 남은 기간에 북한산 무연탄 수입 전면 금지</p>	<p>중국 상무부 고시 (17.8.14): 북한산 석탄, 철, 철광석, 납, 납광석, 수산물 수입 금지</p>	<p>중국 상무부 고시 (17.8.25): 북한의 기업 및 개인의 중국 내 합자, 합작, 외자 기업 활동 금지, 기존 설립된 기업의 증자 및 규모 확대 금지</p> <p>(17.9.22): 대북 석유제품 수출 제한, 북한산 섬유제품 수입 전면 금지</p>	<p>중국 상무부 고시 (18.1.5): 철광석, 전자기기, 운송기기, 원유, 정제유 수출금지, 식품, 농산물, 기계류, 전자기기, 토석류, 목재, 선박 수입 금지</p>

자료: 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검색일: 2018. 1. 2).

나. 양자제재

■ 한국은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 중단, 2010년 5·24 조치, 2016년 2월 개성공단 폐쇄로 현재 전면 금수조치 시행

- 공식적인 남북경협은 전무하나 중국을 통한 우회무역 형태의 임가공 무역이 지속되어 온 것으로 추정⁵⁾
- 주로 의류 제품으로 한국업체가 중국 중개업체를 통해 임가공 요청을 한 후, 임가공품은 북·중 접경지역의 보세창고를 경유해 중국산 형태로 한국에 수입됨.
- 2015년에 중국을 경유한 우회무역으로 한국에 반입된 북한의 총 수출액은 6.9억 달러로, 북한 총 수출액의 16.7%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
- 그러나 안보리 제재 2375호에서 대북 섬유제품 수입을 금지함에 따라 향후 중국을 경유한 남북한 간 우회무역 급감 불가피⁶⁾

■ 미국은 2017년 8월에 이란·러시아·북한 제재 현대화법 제정, 재무부 제재 대상 확대 발표, 대통령 행정명령 발표 등을 통해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 또는 개인도 제재 대상에 포함함.

- ‘제재를 통한 미국의 적성국들에 대한 대응’(Countering America’s Adversaries Through Sanctions Act: HR. 3364)이라고도 불리는 이란, 러시아, 북한 통합 제재법은 유엔안보리 제재에서 더 나아가 러시아 및 중국 기업을 겨냥한 2차 제재의 발판 마련
- 대부분의 조항 앞에는 ‘직간접적인 인지 하에서(knowingly, directly or indirectly)’라는 조건이 붙음.
- 대북 원유 제공, 북한 노동력 고용, 북한 어장에 대한 입어로 제공은 2차 제재 대상에 해당
- 북한 내 임가공 금지는 미국 업체에만 해당(2차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표 2. 이란·러시아·북한에 대한 통합 제재법(‘17. 8)

분야	내용	
	필수제재항목	선택적 제재항목*
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간접적으로 북한으로부터 상당한 규모의 금, 티타늄광, 바나듐광, 구리, 은, 니켈, 아연, 희토류 수입 금지 - 북한에 항공유 수출 금지 - 직간접적으로 북한으로부터 유엔제재안 방침에 위배되는 석탄 및 철광석 수입 금지 - 유엔제재 위반 소지가 있는 북한으로의 자금 송금 또는 재산 이전 금지 - 큰 규모의 현찰(bulk cash), 귀금속, 보석 등 북한으로의 이전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엔제재에서 설정한 한도 이상의 석탄, 철, 철광석 수입 금지 - 북한으로부터 상당한 양의 의류 수입 금지 - 큰 규모의 원유, 정제유 등 석유부산물 수출 금지 ※ 예외: 민생용 연료유 - 북한의 온라인 상업활동과 관련된 행위, 온라인 도박 포함 금지 - 북한으로부터 조업권 구입 금지 - 북한으로부터 대규모 식품 또는 농수산물 수입 금지 - 북한의 해파노동자 고용 금지 - 북한의 교통, 광물, 에너지, 금융서비스 개입 금지

5) 최장호 외(2016), 『북한 주변국의 대북제재와 무역대체 효과』, 연구보고서 16-0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6) Radio Free Asia(2017. 10. 10), 「북 무역회사, 밀수로 금수제품 전달」(검색일: 2017. 10. 11).

금융	- 북한과의 금융서비스를 금지하도록 하는 금융거래서비스 제공자(financial messaging networks)의 범위가 넓어짐 (이전에는 SWIFT만 중심으로 제재). - 북한과의 간접적인 계좌를 통한 금융거래 금지
인권관련 항목	- 북한 노동자 고용 금지 - 북한 노동자가 생산한 모든 물품의 미국 수입 금지 ※ 예외: 강제노역이 아닌 형태의 북한 노동자 고용

주: 선택적 제재항목들은 대통령 재량에 따라 적용 여부를 결정.

자료: 미 재무부, "Countering America's Adversaries Through Sanctions Act"⁷⁾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청(OFAC)은 2017년 8월 22일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러시아 및 싱가포르 기업 10곳과 개인 6인 등 제재 대상 명단을 발표
- 지명된 기업 및 개인의 미국 내 재산이나 미국인 소유의 재산은 동결되며 미국인과 거래할 수 없음.

표 3. 미 재무부 2차 제재 기업 및 개인 명단 발표('17. 8. 22)

분야	국적	기업 및 개인명	혐의
WMD 개발	중국	Dandong Rich Earth Trading Co., Ltd.	북한으로부터 바나듐광 수입
	러시아	Gefest-M LLC 및 그 회장 Ruben Kirakosyan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및 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구룡강 무역회사 측에 금속물질 제공
	중국 및 홍콩	Mingzheng International Trading Ltd.	북한 FTB의 해외 금융거래 대행
석탄 및 원유	중국	Dandong Zhicheng Metallic Materials Co., Ltd. 및 그 회장 Chi Yupeng	직간접적으로 북한으로부터 석탄 또는 금속 구입 또는 취급
		JinHou International Holding Co., Ltd.	직간접적으로 북한으로부터 석탄 또는 금속 구입 또는 취급, 북한 내 광산 투자 및 운영
		Dandong Tianfu Trade Co., Ltd.	
	러시아	Transatlantic Partners Pte. Ltd, Mikhail Pisklin, Andrey Serbin	북한으로 원유 및 휘발유 수출
싱가포르	Velmur Management Pte. Ltd, 그 회장 Irina Huish		
외화 수입	중국 모기업의 나미비아 자회사	Qingdao Construction	북한의 만수대장작사와 협력, 나미비아 정부 건설 프로젝트 공동 참여

자료: 미 재무부 보도자료⁸⁾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 트럼프 정부는 2017년 9월 21일 행정명령 13810호를 발표, 지정된 북한기업 또는 은행과 실물·서비스 또는 기술 등의 거래를 하는 개인이나 기업 재산을 동결
- 북한과 거래한 외국 기업과 거래한 미국 내 기업이나 개인도 제재 범위에 포함, 외국기업이 북한과 미국 중 하나를 강제로 선택하도록 하는 2차 제재 효과를 가짐.

7) https://www.treasury.gov/resource-center/sanctions/Programs/Documents/hr3364_pl115-44.pdf(검색일: 2018. 1. 23).

8) "Treasury Targets Chinese and Russian Entities and Individuals Supporting the North Korean Regime"(2017. 8. 22), <https://www.treasury.gov/press-center/press-releases/Pages/sm0148.aspx>(검색일: 2018. 1. 23).

- 이를 통해 미국은 금융거래, 에너지, 제조업, 섬유업, 어업 등의 부문에서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이나 개인을 제재할 수 있는 압박 수단을 갖게 됨.

표 4.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 13810호('17. 9. 21)

분야	주요 내용
관련 사건	북한의 ICBM 발사('17.6.3, '17.6.28), 6차 핵실험('17.9.2) 및 UNSCR 2371호 및 2375호 후속조치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기업 또는 개인(외국기업 및 개인 포함)에 대한 미국 금융거래 금지 및 미국 내 재산 몰수 ○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북한과 거래한 후 미국 금융거래 금지 및 미국 내 재산몰수를 당한 사람에게 금융, 물질, 기술적 도움을 주거나 실물 및 서비스 거래를 하는 기업이나 개인, 또는 그 밑에서 일을 하는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미국 금융거래 금지 및 미국 내 재산 몰수 - 북한의 건설, 에너지, 금융서비스, 어업, IT, 제조업, 의료, 광업, 의류제조업, 교통업계와 연관된 사업 - 북한의 항구, 공항, 또는 내륙통관지의 소유, 조정, 또는 운영 - 북한의 상품, 서비스 또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한 차례 이상의 유의미한 거래 - 북한정부나 노동당을 위해 수입을 창출하는 북한인 ○ 북한인이 소유·관리하거나 북한의 이익과 관련된 모든 해외금융계정을 통해 미국인의 소유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 유입되는 자금은 제재 대상 - 이에 저촉되는 해외금융기관도 제재 대상

자료: 미 재무부, "Imposing Additional Sanctions with Respect to North Korea" 참고하여 저자 작성.⁹⁾

3. 대북제재 영향 평가

가. UN 안보리 제재

- 유엔 제재의 여파로 2017년 북한의 대중국 수출은 대폭(37.3%) 감소한 반면, 수입은 오히려 늘어(6.1%) 상품수지 적자가 확대됨.

- 상품수지 적자가 전년대비 200% 확대됨.

9) <https://www.treasury.gov/resource-center/sanctions/Programs/Documents/13810.pdf>(검색일: 2018. 1. 23).

표 5. 북한의 대중국 무역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전년동기대비 %)

	2015	2016	2017
대중 수출	2,484 (-12.6)	2,634 (6.1%)	1,650 (-37.3%)
대중 수입	2,946 (-16.4)	3,192 (8.3%)	3,328 (4.3%)
상품무역 수지	-462	-558	-1,677

자료: KITA.

- 2017년 전체 수출에서 유엔 제재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주요 품목은 무연탄 등 철·철광석, 납·납광석을 제외한 모든 광물, 수산물, 의류 등이며, 식품·농산품, 전자기기, 기계류 수출 제재(2397호)의 효과는 2018년부터 나타날 전망이다
- 철광석은 총액이 작년동기대비 증가했는데, 2017년 8월까지의 수출량이 일정 수준 유지되다가 9월에 5.5만 달러로 급감한 후 10월부터는 수출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남. 8월 5일 유엔 대북제재안 2271호 통과 후 8월 14일 중국 상무부에서는 북한으로부터의 철·철광석 수입을 9월 5일부터 전면 금지할 것을 공식 발표함. 그러나 철(HS코드 72호)은 전에 비해 감소하긴 했으나 9월 이후 여전히 200만 달러 정도의 규모가 매일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¹⁰⁾
- 납·납광석 역시 총액면에서는 전년동기대비 증가했으나 중국 상무부 고시에서 명시한 제재 시작시점인 9월부터는 대중 수출액이 급감하였으며 10월부터는 수출이 전무하였고 수산물 역시 9월 이후 북한의 대중 수출이 전무함.

표 6. 북한의 UN 제재 품목 대중 수출실적 변화

(단위: 백만 달러, %)

제재 품목 (HS코드)	관련 제재안	2016년 실적 (총수출 대비 비중)	2017년 실적 (총수출 대비 비중)
무연탄 (270111)	2270, 2321, 2371호	1,177 (44.7)	400.9 (24.3)
의류 (61, 62)	2375호	723.4 (27.5)	562.0 (34.0)
수산물 (03)	2371호	190.1 (7.2)	162.8 (9.9)
철, 철광석 (72, 2601)	2270, 2271호	118.4 (4.5)	162.7 (9.9)
아연 (2608, 79)	2321호	90.4 (3.4)	0.7 (0.04)
식품, 농산품 (12, 08, 07)	2397호	68.4 (2.6)	104.9 (6.4)
납, 납광석 (2607)	2371호	61.5 (2.3)	74.8 (4.5)
토석류 (25)	2397호	34.8 (1.4)	43.6 (2.6)

10) 유엔 대북제재 2375호까지는 구체적인 품목의 HS코드를 표기하지 않아 제재 대상 철제품을 어느 수준까지 규정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음.

전자기기 (85)	2397호	34.5 (1.3)	27.6 (1.7)
동 (2603)	2321호	20.9 (0.8)	0.1 (0)
목재 (44)	2397호	19.2 (0.7)	13.9 (0.8)
은 (261610)	2321호	6.9 (0.3)	0.1 (0)
선박 (89)	2397호	2.2 (0.1)	0.9 (0.05)
기계류 (84)	2397호	0.5 (0.02)	0.6 (0.03)
티타늄광 (2614)	2270호	0.3 (0.01)	0 (0)
니켈 (75)	2321호	0.2 (0)	0 (0)
금 (7108)	2270호	0 (0)	0 (0)
바나듐광 (261590)	2270호	0 (0)	0 (0)
희토류 (2846)	2270호	0 (0)	0 (0)
총계		2,548.7 (96.7)	1,555.6 (94.2)

자료: KITA.

■ 또한 근로자 해외파견 금지(UNSCR 2371, 2375), 합작 금지(UNSCR 2371, 2375) 등에 따라 상품수지 적자 보전에 기여해왔던 서비스수지 등의 악화도 불가피

- 북한이 근로자 해외파견 등으로 벌어들이는 외화에 대해서는 수억 달러에서 수십억 달러까지 다양한 추정이 있음.¹¹⁾
- 중국 국가외국전국가국이 2017년 9월 18일 발표한 공고문 1호를 통해 북한 국적자에 대한 노동허가 총 건수를 유엔 제재 2371호 채택일 기준으로 더 초과되지 못하도록 고시함.¹²⁾ 또한 중국 공장들이 더 이상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북한 무역회사들에게 공식 통보하기 시작했다는 보도가 있으며,¹³⁾ 북한정부도 중국과 러시아의 해외파견 노동자 약 17만 명에게 2017년 안으로 귀국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보도가 있음.¹⁴⁾

11) UN의 2015년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 등 해외에 파견한 근로자는 5만 명 이상으로, 연간 23억 달러의 외화를 벌어들이는 것으로 추정됨. 미국 UN 대표부에 의하면 북한의 해파근로자 규모는 10만 명이며, 연간 50억 달러를 벌어들이는 것으로 추정됨. 하지만 이러한 추정은 과도하다는 지적도 많음. 장형수(2013), 「북한 외화수급 추정과 분석: 1991~2012년」, 『통일정책연구』, 22.2, pp. 165~190.

12) 「중국 이행보고서 "북한 노동자 규모 동결 지시...사드 반대"」(2017. 12. 8), VOA, <https://www.voakorea.com/a/4154789.html>(검색일: 2018. 1. 15).

13) 「중 공장들, '북 노동자 고용중단' 통보...북 외화벌이 '빨간불'」(2017. 8. 11), 데일리NK, <http://www.dailynk.com/korean/read.php?num=111167&catId=nk04505>(검색일: 2018. 1. 15).

14) 「일 언론"북한, 중국·러시아 노동자에 연말까지 귀국 지시」(2017. 11. 10),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1/10/0200000000AKR20171110049000073.HTML>(검색일: 2017. 11. 10).

■ 원유 및 정제유 수입 제재는 지속적으로 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나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유입량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북한 내 휘발유 가격은 2017년 초 폭등했다가 안정되었으나, 최근 2397호 제재를 전후하여 다시 폭등세를 보여 2018년 1월 말에 고점을 찍었으나 2월 초에는 대폭 하락함.¹⁵⁾ 이는 국경지역 밀무역의 영향이라는 보도가 있음.¹⁶⁾

■ 유엔 제재 2397호는 기계류·운송기기·금속 일부의 대북 수출을 금지하고 있어, 향후 북한 공장·운송 등의 가동에 지장이 초래될 전망

나. 미국 양자제재

■ 미국은 북한과의 직접적인 교류가 전무하므로 양자제재가 북한 무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함.

■ 그러나 북한과 직접 거래하는 제3국 기업 또는 개인에 대한 세컨더리보이콧을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음.

- 미국은 종전에 이란을 굴복시키기 위해 세컨더리보이콧을 이행한 사례가 있음.
 - 이로 인해 ABN AMRO, Barclays, Credit Suisse, ING, Lloyds, Standard Chartered 등을 포함한 이란과 거래하는 다수의 제3국 은행들이 각각 1억 달러를 넘는 손해를 감수
- 북한에 대해서도 2007년 Banco Delta Asia 계정을 동결한 사례가 있었으며 최근에는 Hongxiang 그룹, ZTE, Limac 등의 미국 내 수익 또는 재산에 대한 법적 조치가 진행 중
- 최근 미국 워싱턴 정책입안자 사이에 북한과 거래하는 소규모 기업들의 모기업인 중국 국유기업을 제재해야 보다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으나 실제로 모기업과 자기업 간의 관계나 자기업과 북한 간의 거래에 대해 모기업이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에 어려움이 예상됨.

표 7. 미국의 대북 세컨더리보이콧 사례

회사 및 개인	시기	국적	비고
Banco Delta Asia	2007년	마카오	미국의 Patriot Act하에 집행
Ma Xiaohong (Hongxiang 그룹 회장) ¹⁷⁾	2016년 9월	중국	미국정부 측에서 기소한 상태이나 중국 내에서 도주 중

15) 「북한 연료값 한 달 새 60% 이상 폭등」(2018. 1. 9), 자유아시아방송, https://www.rfa.org/korean/weekly_program/radio-world/radioworld-01092018104811.html(검색일: 2018. 1. 15); 「북한 시장 최신 물가 정보(2018년 2월 6일 조사)」, 아시아프레스 북한보도 <http://www.asiapress.org/korean/nk-economys/nk-korea-prices/>(검색일: 2018. 2. 9).

16) 「북, 밀수로 휘발유 가격 하락」(2018. 1. 18), 자유아시아방송, https://www.rfa.org/korean/in_focus/food_international_org/nkoilprice-01182018083240.html(검색일: 2018. 2. 9).

ZTE ¹⁸⁾	2017년 3월		북한과 이란에 대한 수출금지 제재를 위반하여 11.9억 달러의 벌금 배상
Limac ¹⁹⁾	트럼프 내각에서 제재 검토 중		2008년부터 북한의 련봉기업과 합작회사를 설립, 광산업에 투자
Mingzheng International Trading Ltd. ²⁰⁾	2017년 6월		북한 조선무역은행 중국지부로 의심, 미국 검찰에서 소송 제기 상태
Dandong Chengtai Trading Ltd. ²¹⁾	2017년 8월		미국 검찰에서 대북 석탄수입 관련 \$400만 규모의 소송 제기 상태, 대규모 대북 석탄 수입을 대행한 세 개 중국 기업 중 하나
Chi Yupeng이 소유한 다수의 회사들 ²²⁾	2017년 8월		북한의 군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것으로 의심, 미국 검찰에서 소송 제기 상태
Velmur Management Pte. Ltd, Transatlantic Partners Pte. Ltd. ²³⁾	2017년 8월	싱가포르	원유 수입을 위해 북한 은행들이 이들을 통해 자금을 유통해 세탁한 혐의, 미 검찰 소송 제기 상태

자료: 언론보도 참고하여 저자 작성.

■ 다만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 등을 감안할 때 미국이 중국 대기업을 상대로 대북 세컨더리보이콧을 실행할지 여부는 미지수

- 중국은 미국의 독자제재에 중국 기업이 영향을 받는 것을 강력히 반대·규탄하는 성명을 발표(17.8.23).²⁴⁾
- 특히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과 러시아 회사의 수가 많아 실질적으로 이들의 거래 상태를 모두 파악하고 제재하는 것에 어려움이 예상된다.²⁵⁾

17) "Businesswoman's Fate a Test of China's Resolve on North Korea"(2018. 1. 10), <https://www.nytimes.com/2018/01/10/world/asia/north-korea-china-trade-ma-xiaohong.html>(검색일: 2018. 2. 1).

18) "China's ZTE pleads guilty, settles U.S. sanctions case for nearly \$900 million"(2017. 3. 7), Reuters, <https://www.reuters.com/article/us-usa-china-zte/chinas-zte-pleads-guilty-settles-u-s-sanctions-case-for-nearly-900-million-idUSKBN16E1X1>(검색일: 2017. 12. 21).

19) "Chinese-North Korean Venture Shows How Much Sanctions Can Miss"(2017. 5. 7), Wall Street Journal, <https://www.wsj.com/articles/chinese-north-korean-venture-shows-how-much-sanctions-can-miss-1494191212>(검색일: 2017. 12. 20).

20) "This Chinese Company is Helping U.S. Target North Korea Violators"(2017. 9. 8), Bloomberg,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17-09-08/u-s-is-said-to-target-north-korea-violators-with-zte-s-help>(검색일: 2017. 12. 20).

21) "U.S. Expands North Korea Sanctions, Seeks to Seize Millions"(2017. 8. 23),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17-08-22/treasury-sanctions-russian-chinese-companies-over-north-korea>(검색일: 2017. 12. 20).

22) "Chinese entrepreneur aided North Korean efforts to develop nuclear weapons, U.S. lawsuit says"(2017. 8. 23), Washington Post, https://www.washingtonpost.com/news/wonk/wp/2017/08/23/how-a-chinese-entrepreneur-evaded-sanctions-and-financed-kim-jong-uns-nuclear-weapons-program/?utm_term=.ac89461c2343(검색일: 2017. 12. 21).

23) "U.S. Expands North Korea Sanctions, Seeks to Seize Millions"(2017. 8. 23),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17-08-22/treasury-sanctions-russian-chinese-companies-over-north-korea>(검색일: 2017. 12. 20).

24) 「중-러, 북한 관련 미국 독자 제재에 강력 반발」(2017. 8. 24), VOA, <https://www.voakorea.com/a/3997893.html>(검색일: 2017. 10. 7).

25) "How the North Korean oil trade works: former insider speaks," NK News, <https://www.nknews.org/pro/how-the-north-korean-oil-trade-works-former-insider-speaks/>(검색일: 2017. 10. 7).

4. 향후 전망

■ 중국이 동참한 가운데 초강력 대북제재가 이행되고 있어 북한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됨.

- 북한은 축적된 외화를 바탕으로 단기간 기존의 수입 수준을 유지하거나 수입량을 줄여 1990년대 고난의 행군과 유사한 자력갱생의 길을 선택할 수 있음.
- 그러나 핵심 품목 수출과 투자유치 및 근로자 파견 등 주요 외화벌이 통로가 막힌 상황이어서 민생 부문을 포함한 경제 전반에 큰 타격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현 대북제재 국면에서는 본격적인 남북경협 재개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국제제재를 우회하여 남북경협을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하자는 주장도 있으나 이에 따른 한국의 정치·외교적 부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장기적인 남북관계를 고려할 때 대북제재의 대상이 아닌 인도주의적 교류는 지속적으로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으나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강경한 입장을 고려할 때 북한핵 폐기가 전제되지 않는 한 제재를 통한 대북압박은 지속되거나 강화될 개연성이 큼.

-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펜스 부통령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최고의 압박("Maximum pressure") 공세를 지속할 것이라고 언급²⁶⁾한 것을 고려할 때, 북한의 변화 없이는 미국을 위시한 국제사회의 제재 압박은 더욱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26) "Pence Promises 'Most Aggressive' North Korea Sanctions Yet"(2018. 2. 7), Wall Street Journal, <https://www.wsj.com/articles/pence-promises-most-aggressive-north-korea-sanctions-yet-1518001295>(검색일: 2018. 2. 9).

참고문헌

[국문자료]

최장호, 임수호, 이정균, 임소정. 2016. 『북한 주변국의 대북제재와 무역대체 효과』. 연구보고서 16-0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장형수. 2013. 「북한 외화수급 추정과 분석: 1991~2012년」. 『통일정책연구』, 22.2, pp. 165~190.

[웹사이트]

- 「북 무역회사, 밀수로 금수제품 전달」. 2017. 10. 10. Radio Free Asia(검색일: 2017. 10. 11).
- 「중 공장들, '북 노동자 고용중단' 통보...북 외화벌이 '빨간불」. 2017. 데일리NK. (8월 11일).
<http://www.dailynk.com/korean/read.php?num=111167&catald=nk04505>(검색일: 2018. 1. 15).
- 「일 언론 북한, 중국·러시아 노동자에 연말까지 귀국 지시」. 2017. 연합뉴스. (11월 10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1/10/0200000000AKR20171110049000073.HTML>(검색일: 2017. 11. 10).
- 「북한 연료값 한 달 새 60% 이상 폭등」. 2018. 자유아시아방송. (1월 9일).
https://www.rfa.org/korean/weekly_program/radio-world/radioworld-01092018104811.html(검색일: 2017. 1. 15).
- 「북한 시장 최신 물가 정보(2018년 2월 6일 조사)」. 아시아프레스 북한보도 .
<http://www.asiapress.org/korean/nk-economys/nk-korea-prices/>(검색일: 2018. 2. 9).
- “This Chinese Company is Helping U.S. Target North Korea Violators.” 2017. Bloomberg. (9월 8일).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17-09-08/u-s-is-said-to-target-north-korea-violators-with-zte-s-help>
(검색일: 2017. 12. 20).
- 「북, 밀수로 휘발유 가격 하락」. 2018. 자유아시아방송. (1월 18일).
https://www.rfa.org/korean/in_focus/food_international_org/nkoilprice-01182018083240.html(검색일: 2018. 2. 9).
- “How the North Korean oil trade works: former insider speaks.” NK News.
<https://www.nknews.org/pro/how-the-north-korean-oil-trade-works-former-insider-speaks/>(검색일: 2017. 10. 7).
- 「2013년 남북교역·북중무역 동향 비교」. 2014.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2월).
<http://www.sonosa.or.kr/newsletter/201403/energy.pdf>(검색일: 2018. 1. 15).
- 「중국 이행보고서 "북한 노동자 규모 동결 지시...사드 반대」. 2017. VOA. (12월 8일).
<https://www.voakorea.com/a/4154789.html>(검색일: 2018. 1. 15).
- “Treasury Targets Chinese and Russian Entities and Individuals Supporting the North Korean Regime.” 2017. 미 재
부부 보도자료. (8월 22일). <https://www.treasury.gov/press-center/press-releases/Pages/sm0148.aspx>(검색일: 2018. 1. 23).
- 「북, 밀수로 휘발유 가격 하락」. 2018. 자유아시아방송. (1월 18일).
https://www.rfa.org/korean/in_focus/food_international_org/nkoilprice-01182018083240.html(검색일: 2018. 2. 9).
- “China’s ZTE pleads guilty, settles U.S. sanctions case for nearly \$900 million.” 2017. Reuters. (3월 7일).
<https://www.reuters.com/article/us-usa-china-zte/chinas-zte-pleads-guilty-settles-u-s-sanctions-case-for-nearly-900-million-idUSKBN16E1X1>(검색일: 2017. 12. 21).
- “Chinese-North Korean Venture Shows How Much Sanctions Can Miss.” 2017. Wall Street Journal. (5월 7일).
<https://www.wsj.com/articles/chinese-north-korean-venture-shows-how-much-sanctions-can-miss-1494191212>(검
색일: 2017. 12. 20).
- “This Chinese Company is Helping U.S. Target North Korea Violators.” 2017. Bloomberg. (9월 8일).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17-09-08/u-s-is-said-to-target-north-korea-violators-with-zte-s-help>
(검색일: 2017. 12. 20).
- “U.S. Expands North Korea Sanctions, Seeks to Seize Millions.” 2017. 8. 23.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17-08-22/treasury-sanctions-russian-chinese-companies-over-north-korea>(검색일: 2017. 12. 20).
- “Chinese entrepreneur aided North Korean efforts to develop nuclear weapons, U.S. lawsuit says.” 2017.
Washington Post. (8월 23일).

https://www.washingtonpost.com/news/wonk/wp/2017/08/23/how-a-chinese-entrepreneur-evaded-sanctions-and-financed-kim-jong-uns-nuclear-weapons-program/?utm_term=.ac89461c2343(검색일: 2017. 12. 21).

“U.S. Expands North Korea Sanctions, Seeks to Seize Millions.” 2017. 8. 23.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17-08-22/treasury-sanctions-russian-chinese-companies-over-north-korea>(검색일: 2017. 12. 20).

「중-러, 북한 관련 미국 독자 제재에 강력 반발」. 2017. VOA. (8월 24일). <https://www.voakorea.com/a/3997893.html>(검색일: 2017. 10. 7).

“Pence Promises ‘Most Aggressive’ North Korea Sanctions Yet.” 2018. Wall Street Journal. (2월 7일).

<https://www.wsj.com/articles/pence-promises-most-aggressive-north-korea-sanctions-yet-1518001295>(검색일: 2018. 2. 9).

미 재무부. <http://www.treasury.gov/resource-center/sanctions>.

UNSC Sanctions Committee(DPRK). <https://www.un.org/sc/suborg/en/sanctions/1718/resolutions>.

UN COMTRADE. <https://comtrade.un.org/data>.

KITA. <http://www.kita.net>.